

편집자 서문

1974년과 1976년 사이, 스위스 로카르노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서 「소유냐 존재냐」를 집필할 때 노령의 에리히 프롬은 1976년에 출판된 그 책에 실제로 이용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원고와 장(章)들을 썼다. 그 장들 중의 일부가 지금 이 책에 담겨 있다. 그것들은 전부가, 개인의 “존재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존재를 향한 단계들”을 다루고 있다.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를 조판하기 직전에 그 타이프 원고 중에서 “존재를 향한 단계들”을 다룬 장들을 뺐던 것은 개개인이 소유 양식을 만들어내는 경제적 현실을 변화시키지 않고서 그 자신에 대한 자각, 자신의 발전, 자신의 자기 분석에서 정신적 행복을 찾기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자신의 책을 오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가진 아주 풍요로운 사회의 전형적인, “소유” 지향의 대중적 현상은 그 뿌리들을 현대 산업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서, 특히 노동 조직에서 그리고 그 생산 양식에서 찾아야만 한다.

우리의 소유 지향이 오늘날의 산업 문명의 구조적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음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현실의 극복은 인간 자신의 심리적, 지적, 육체적 힘들을 되찾는 데 있고, 그 자신이 자기 결단을 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존재를 향한 단계들(Steps toward Being)”이 이제 출판되는 것이다. 그 단계들은 생산적인 자각에 이르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최근의 흐름들로 확실히 밝혀졌듯이 자각, 자기 실현, 자기 발전 등은 거의 언제나 그 자신의 주체적인 힘들의 고양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대체적으로 자기 자각의 방법들이 소유 지향을 거드는

새로운 폭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개인적인 자기 도취는 강화되기만 하고 이성과 사랑의 불능(프롬에 의하면 이것들은 존재 지향에 특징적인 것들이다)이 굳어져가고 있다.

이전에 「소유냐 존재냐」에서 이루어졌던 언급들 중 몇 가지에 대한 다음의 요약은 그 책을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의 대체물로서가 아니라, 그 책을 읽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책의 가장 중요한 사상들을 환기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의 두 대안을, “두 가지의 근본적인 실존 양식, 혹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지향, 각기 한쪽이 다른 한쪽을 압도함으로써 한 사람의 사고와 감정과 행동이 결정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성격 구조”(「소유냐 존재냐」)로 이해했다. 한 사람이 자기 삶을 지향시킬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찾아본다면 이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즉 결국 사람은 자기 삶을 소유, 아니면 존재로 지향시킨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궁극적으로 자기 삶을 소유 쪽으로 지향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의 삶을 소유 쪽으로 지향시키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실존과, 자신의 삶의 의미와, 그리고 자신의 생활 방식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것들, 자신이 더 소유할 수 있는 것들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제 소유의,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의 대상물이 되지 못할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 온갖 유형의 물질적인 것들—— 자기 소유의 집, 돈, 주식, 미술품, 책, 우표, 동전, 그리고 얼마간은, “수집열”으로써 모을 수 있는 다른 것들—— 이 다 포함된다.

사람들 또한 소유의,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소유하고 있고 그 사람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긴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점에서는 보다 “동정심이 많아서”, 그보다는 그 사람을 걱정하고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또한 그 사람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어린이, 장애인, 늙은이, 환자, 그리고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소유당하고, 그 사람 자신의 일부로 간주되는데, 그 환자가 건강해진다든가 아이가 저 혼자 결정하고 싶어할 때, 그 고통이란! 그럴 때 소유 양식에 지배당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른 사람들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듯, 우리는 또한 미덕과 명예를 획득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활 처신을 관철하려고 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평판, 어떤 이미지, 건강, 아름다움, 혹은 젊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불가능할 때에는 최소한 “체험”, “추억”을 가지기를 원한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종교적 성격을 가진 신념들도 또한 소유물로 획득하고 굳세게 지킬 수 — 유혈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 있는 것들이다. 모든 것이, 자신이 진실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혹은 자신이 올바른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소유 쪽으로 지향시키면, 사실상 무엇이든 소유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혹은 가지지 않은 것에 마음이 쏠려 있느냐 아니냐이다. 무소유 지향 또한 하나의 소유 지향이다. 프롬은 금욕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 지향은 바로 말해 “무소유” 지향과 동일하지 않은 어떤 것이다. 상존하는 문제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결정할 때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할 때, 소유 아니면 무소유가 얼마만한 자리를 차지하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실존

의 소유 양식으로 소유한 것인지 아닌지, 혹은 프롬의 말을 인용하자면,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소유한” 것인지 아닌지 흔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자신이 특별히 귀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자문하고, 그럼으로써 중요하고 귀중한 그것을 잃으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려봄으로써, 즉 자신이 딛고 선 기반을 잃게 될 것인가 아닌가, 삶이 무의미한 것으로 변할 것인가 아닌가를 그려봄으로써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신을 속히 시험해볼 수 있다. 만일 그때에 어떠한 자신감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면, 살고 일하는 것이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 된다면, 그 사람은 삶을 소유 지향 — 좋은 직업, 말 잘 듣는 자식들, 좋은 관계, 심오한 통찰력, 더 훌륭한 논법 등을 가지느냐 — 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다.

소유 지향적인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두 발이 아니라 목발을 이용한다. 그러한 사람은 존재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자기가 되기 위해서, 외부의 대상물들을 이용한다. 그런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인 것은, 그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한에서뿐이다. 개인이 한 대상물의 소유에 의해서 한 주체로서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는 목적물들에 사로잡히고 그럼으로써 그 목적물들을 소유한다는 목적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동시에 그 사람 자신의 두 발을 대신하는 목발의 비유는, 다른 한 지향, 즉 존재 지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준다. 자기 힘으로 해나가기 위한 육체적 능력 — 필요하다면 목발이 대신할 수도 있는 — 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해나가기 위한 정신적 능력 또한 가지고 있다. 사랑의 능력, 이성의 능력, 생산적 인 활동의 능력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내재된 정신적인 힘들 또한 소유 지향으로 대체되어 사랑과 이성과 생산적 활동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이 쏠려 있는 대상물들의 소유에 의존하게 되는 수도 있다.

사랑, 이성, 그리고 생산적인 활동력은 그것들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그 정도만큼만 생기고 자라는 정신적인 힘들이다. 그것들은 다 써버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혹은 소유의 대상물들처럼 소유될 수도 없는 것들이며, 다만 실천하고 발휘하고 투자하고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소유의 대상물들 — 사용하면 소모되어 없어지는 — 과는 대조적으로, 사랑, 이성, 생산적 활동력은 그것들이 공유되고 이용될 때 자라고 크다.

존재 지향은 언제나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그 사람 자신의 정신적 힘들 쪽으로 향해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기 안에, 외부 세계에 있는, 알지 못했던 낯선 것들이 자기 자신 특유의 것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사실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을 배움으로써 그 사람은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환경과의 보다 큰, 보다 포괄적인 관계를 얻게 된다.

「소유냐 존재냐」에서 프롬은 오늘날의 소유 지향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소유에 의해 자신이 결정 혹은 규정되도록 놓아두려는 유혹에 저버릴 수 있는 한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현실에 기반을 둔 대중적 현상이라는 관찰로부터 시작했다. 오늘날의 경제, 노동 조직, 사회 생활의 구조적 현실들에서 개인 자신의 정신적인 힘들의 엄청난 손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운명적 발전의 뿌리들이 1차적으로는, 사회경제적으로 결정된 오늘날의 인간의 처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뿌리들을 근거로 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개인을 언제나 사회화되어왔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프롬은 “존재를 향한 단계들”에 관한 장(章)을, 구조적 변화들을 위한 그의 제언들로 대체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소유 지향에서 존재 지향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한 개인의 노력은 오직 그 노력들이 동시에 그 사람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경우에만 의미 있는 것일 수 있다. 직업적 활동에서, 자신이 맡은 작업 조직에서, 또 정치적, 사회적 자각에서, 이성, 사랑, 생산적 활동력이라는 자신의 정신적 힘들을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힘들이 사용함으로써 더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사람 자신의 사회경제적 생활 방식을 이끄는 가치들이 변화되어야만 한다.

자각과 자기 발전을 성취하고자 하는, 진정으로 내적 외적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세계에 대한 어떤 관점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는 우리의 사회경제적 생활 방식의 해방과 관련되어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저자는 「소유냐 존재냐」에서 “삶의 실체가 그 모순들과 그 불합리성으로부터 얼마만큼 해방되느냐 하는 그 정도만큼만 시도는 현실과 일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책에서 에리히 프롬은 처음에는, 그가 아주 오래전에 분명하게 인식했고 감정(鑑定)했던 것 그대로의 그릇된 자각 방법들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는 자각을 얻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정신분석학의 한 응용으로서의 자기 분석에 아주 광범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신이 날마다 실천해왔던, 존재를 향한 단계들을 우리와 함께 거쳐간다.

여기서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된 이 책은 프롬 자신이 출판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때때로 원문을 나누고 순서적 체계를 보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이너 펑크
튀빙겐(독일), 1992